

엷히고설킨 애절한 사연들… “나도 봐야겠소!”

이병헌에 총 겨논 김태리 흥미진진
김의성 등 조연들의 열연도 힘보태

tvN 토일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질주가 시작됐다. 24부작 드라마는 반환점을 돌아 19일 방송한 14회에서 인물들의 갈등 구조가 절정에 달하면서 시청률도 대폭 올랐다. 이제는 남은 10회에서 보여줄 출연자들의 활약들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미스터 션샤인’ 14회는 15.6%(닐슨코리아)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한 동안 12~13%대에서 정체되었던 시청률은 14회에 15%를 돌파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예고했다. 연출자 이응복 PD와 김은숙 작가 콤비의 전작인 ‘도깨비’는 종영 2회를 앞두고 15%를 넘는 것에 비하면 ‘미스터 션샤인’의 속도는 꽤 빠르다. 역사를 바탕으로 한 사극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시청자 유입이 다소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미스터 션샤인’은 이를 보기 좋게 불식시켰다.



이병헌과 김태리 주연의 ‘미스터 션샤인’이 오랜 예열을 끝내고 달아오르고 있다. 인물간 갈등 구조가 본격 드러나면서 시청률도 14회 방송에서 15%까지 뛰어올랐다. 사진제공 | 화앤픽쳐스

이러한 성과는 김은숙 작가가 그린 인물들의 엷히고설킨 사연이 긴장감을 고조시키면서 나타나고 있다. 초반 시대적 배경과 인물들을 설명하느라 전개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이야기가 절반을 넘어가면서 상승세가 뚜렷해졌다. 유진(이병헌)과 고애신(김태리)의 러브라인, 고애신을 향한 구동매

(유연석)의 애잔한 순애보, 유진을 바라보는 쿠도 히나(김민정)의 안쓰러움, 자신을 밀어내는 고애신을 지켜주려는 김희성(변요한) 등 처한 상황에 따라 각자 입장이 다른 다섯 인물들의 결말이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14회에서 인물 간의 갈등이 절정에 이르면서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였다.

유진의 아버지와도 같았던 선교사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유진이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려는 과정이 시청자의 시선을 이끌었다. 진실에 다가갈수록 드러나는 위기, 고애신이 자신의 의병 활동을 지지한 유진에게 충구를 겨냥아하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벌어져 긴장감과 흥미진진함이 배로 상승했다.

적재적소에서 웃음을 안기는 행랑아범 신정근과 함안댁 이정은, 전당포 형제 김병철과 배정남, 임관수 역의 조우진 등 조연들의 열연도 드라마의 인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또 회를 거듭할수록 거센 횡포를 보여주는 이완익을 연기하는 김의성의 활약도 인기요소로 빼놓을 수 없다.

드라마 제작사의 한 관계자는 “12회까지 중심이 됐던 각 인물들의 사연이 서서히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극이 긴장감 있게 전개될 것”이라면서 “강대국에 맞서 나라를 지키려는 의병들의 운명이 극적이면서 처절하게 펼쳐진다”고 귀띔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연예

13

2018년 8월 21일 화요일

스포츠동아

#해시태그 컷



사랑하면 서로 닮는다더니...

연기자 소이현·인교진 부부가 다정함을 과시했다. 소이현은 인교진과 얼굴을 맞댄 사진을 공개하며 “비슷해 보이는 건 나만 그런 건가? 쌍둥이인가?”라고 웃는다. 활짝 웃는 분위기가 비슷해 보인다. 두 사람은 2014년 결혼해 두 딸을 낳고 방송을 통해 행복한 모습을 공개하고 있다. 팬들은 “사랑하면 닮는구나”며 부러운 반응을 보인다.

백슬미 기자

#스포츠포동아 #소이현 #인교진 #쌍둥이부부

내 마음에 작품 하나

45 황찬성-소설 ‘동물농장’

주위 있을법한 사람 풍자 리더의 중요성 다시 생각

그룹 2PM 멤버이자 연기자 황찬성은 집단 안에서 변해가는 개인의 모습에 주목했다. 지인으로로부터 선물 받은 조지 오웰의 ‘1984’를 읽고 작가의 또 다른 소설 ‘동물농장’에까지 이르렀다. 책은 전체주의 체제 속에서 타락해가는 이율배반적 인간의 모습을 동물들에 빗대 풍자한다.

‘동물농장’은 정치적 풍자와 비판에 초점이 맞춰져있지만 우화 형식이라 쉽게 읽힌다. 소설에 등장하는 돼지, 말, 양, 개 등 동물들의 모습은 나 혹은 내 주변에 있을 법한 사람들의 행동을 보여준다.

황찬성은 “책에 등장하는 동물들을 보다 보면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모두가 꿈꾸는 사회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집단이 존재한다. 거기엔 늘 리더가 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조직원들은 리더의 행동에 따라 움직인다. 리더의 의견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 보이지 않는 억압과 착취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개인은 없다. 리더는 개인의 의견을 묵살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행동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조직이 타락한다. 모두가 원했던 목표는 사라지고 만다.

‘동물 농장’에서는 무리의 우두머리격인 돼지가 탐욕에 눈을 뜨면서 스스로 규칙을 깨버리는 모습을 보인다. 인간들의 착취 행동에 반기를 들며 인간을 내몰지만, 돼지들이 인간보다 더 악랄하게 변화한다.

황찬성은 “한 사람의 욕심으로 집단이 어떻게 부패되어 가는지 볼 수 있다”고 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연예현장.jpg



드디어 완전체가 됐다. 걸그룹 이달의 소녀가 20일 오후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데뷔 앨범 ‘+ +’(플러스 플러스)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열고 그동안 준비해온 실력을 드러냈다. 이달의 소녀는 최근 현진 하슬 여진 비비 김립 진솔 최리 이브 추 고원 올리비아 혜 등으로 구성된 12인조. 이들은 앞서 4명씩 3개 유닛으로 선보인 뒤 완전체로 데뷔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관심을 받아왔다. 미국 발보드는 ‘2018 가장 기대되는 걸그룹’으로 꼽기도 했다. 멤버 최진은 이날 쇼케이스에서 “첫 번째 멤버부터 지금까지 2년이 걸렸다. 벅차기도 하고 설레고 떨린다. 시간이 오래 걸린 만큼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진현 기자 kwangshin00@donga.com

마동석, ‘성난 황소’ 공동제작자로 나선다

‘팀 고릴라’ 이끌며 영역 확장 나서

배우 마동석이 본격적인 영화 제작자로 이름을 올린다.

마동석은 내년 개봉을 목표로 최근 촬영을 마친 주연 영화 ‘성난 황소’(감독 김민호)의 공동제작자로 나섰다. 상영중인 ‘신과함께-인과 연’과 ‘부산행’ 등 1000만 관객 동원작은 물론 ‘군도:민란의 시대’ 등 대형 흥행작으로 자신의 위상을 굳힌 뒤 영역을 더욱 넓혀가게 됐다.

마동석은 그동안 ‘팀 고릴라’라는 기획 및 창작 프로젝트그룹을 이끌어왔다. 시나리오 작가 등으로 구성된 팀 고릴라는 ‘합정’ ‘범죄도시’ ‘두 남자’ ‘젼피언’ 등을 기획했다. 올해 추석 개봉을 앞둔 ‘원더풀 고스트’도 팀 고릴라의 작품이다. 마동석은 관련 기획을 이끌어 동시에 주연으로도 나서 ‘범죄도시’ ‘젼피언’ 등을 흥행시켰다. 창작 시나리오뿐 아니라 영화화를 목표로 10여편의 웹툰도 개발해왔다.



마동석

이다.

마동석은 배우로서 자신의 기량을 더욱 원활하고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영화 기획 및 제작에 나서고 있다. 그는 “영화를 기획하는 것은 캐릭터라이징의 한 과정이다”면서 “배우로서 영화의 전체적인 면을 볼 수 있는 시선을 통해 연기에 도움을 받는다”고 말한 바 있다.

그가 주연하고 공동제작한 ‘성난 황소’는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 나선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리는 액션물이다. 송지효, 김성오 등이 마동석과 의기투합해 최근 촬영을 마치고 현재 한창 후반작업 중이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

JYP와 계약 해지…전소미에게 무슨 일이?

정식 데뷔 전부터 ‘대형 신인’ 주목
입 닫은 JYP…추측성 소문만 무성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정식 데뷔도 하기 전에 스타성을 인정받아 ‘대형 신인’으로 주목받던 전소미(17)가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JYP)를 떠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JYP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소속 아티스트 소미와의 상의 하에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함께해준 아티스트와 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이 같은 JYP 측의 갑작스런 발표에 전소미 팬들과 누리꾼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전소미는 2016년 방송한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1에서 출품 1위를 차지하며 프로젝트그룹 ‘아이오아이’의 센터로 나섰던 인물이다. 당시 열다섯의 나



전소미

이에도 성숙한 외모와 월등한 실력 등으로 걸그룹 멤버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서 인기그룹 트와이스의 결성 과정을 담은 오디션 프로그램 ‘식스틴’에 출연한 그는 최종

관문에서 탈락해 ‘준비된 신인’으로 불렸다. 특히 전소미가 최근 트와이스를 잇는 JYP의 새 걸그룹 멤버로 데뷔를 앞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전해진 전속계약 해지 소식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소속사는 구체적인 해지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JYP 측은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한 내용 외에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소미의 계약해지 배경을 둘러싼 추측만 무성해지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